


2017년 제3차 청소년분과 회의록

일 시	2017년 03월 10일(금) 10:00 ~ 12:00			
장 소	무봉종합사회복지관			
참석자 7/17 공(0/2) 민(7/15)	성 명	확인	성 명	확인
	임정완(수원시 청소년지원팀)	×	박병준(청소년희망등대센터)	×
	김희순(수원탁틴내일)	○	송경순(수원교육지원청)	○
	이수진(우만종합사회복지관)	○	남영후(권선청소년상담실)	×
	권수정(연무사회복지관)	○	이한길(수원YMCA)	×
	기유리(무봉종합사회복지관)	○	김혜영(수원시 청소년지원팀)	×
	김광무(월드비전 경기지역본부)	×	정혜진(수원YWCA)	×
	김선향(우리누리청소년회)	×	조기연(한국청소년진흥재단)	○
	김용주(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)	×	채상훈(영통종합사회복지관)	○
김원숙(수원시 청소년성문화센터)	×			
회의주제 및 안건	1. 보고 및 공유 가. 신규위원 위촉장 전달 및 인사 - 김원숙, 이수진 위원 나. 기관의 행사 및 사업 공유 2. 청소년 정책 스터디 가. 청소년 투표권 - 기유리 위원 3. 논의 사항 가. 2017년 청소년분과 민관협력 공동사업 계획(안) 공유 및 논의			
회의결과	1. 보고 및 공유 가. 신규위원 위촉장 전달 및 인사 - 이수진 위원 나. 기관의 행사 및 사업 공유 2. 청소년 정책 스터디 가. 청소년 투표권 - 기유리 위원 - 별첨자료 확인 - 국내 18세 참정권 관련 법적 해석 내용 공유 :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의 미성숙을 근거로 19세 참정권을 고수 : 병역법, 근로기준법 등 타법령에서 18세 이상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참정권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등의 소수의견 존재 - 18세 이상 청소년 참정권에 대한 분과 위원 의견 교류 : 정치적 판단력은 연령이 아닌 정치에 대한 인식과 관심으로 좌우된다고 판단됨. 따라서 중,고등과정에서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한다면 18세에 충분히 성숙한 정치적 판단이 가능할 것임.			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: 청소년이 정치와 단절되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쇠신해야 할 것임. : 법적 의무교육을 이수한 국민(16세)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정치적 판단을 키울 수 있는 제도가 갖춰진다고 한다면 충분히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됨. : 청소년 투표참여가 청소년 정책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. : 향후 청소년 참정권 및 투표권으로 토론회를 할 경우 현재 수원YMCA에서 활발하게 청소년 투표권 관련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할 필요가 있음.
회의사진	
기 타	